

한국 해군의 전략 수립 방향 연구

- 미군의 JOAC, ASB 개념 분석과 한국 해군에의 함의-

나성민*

〈목 차〉

I. 서 론

II. 기존문헌 검토와 분석틀

III. 비판적 접근: 한국 해군이 전면 수용 시 발생 가능한 문제점

IV. 제안: 문제점 극복을 통한 한국 해군 전략에의 부분적 수용

V. 결 론

I. 서 론

1. 문제제기

한국 해군은 현대 미군이 증점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는 합동작전접근개념(JOAC, Joint Operational Access Concept)과 공해전투(ASB, Air-Sea Battle)

* 대한민국 해군대위, 해군사관학교 58기 임관, 연세대학교 정치학과 석사, 現 해군 1함대 136고속정 편대 참-329호정 정장.

개념을 수용해야 하는가? 수용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현대의 미군은 중요한 안보 위협으로 잠재적 적국의 반접근/영역거부(A2/AD, Anti-Access/Area-Denial)¹⁾ 전략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항하기 위해 합동작전접근개념과 공해전투 개념을 개발하였다. 합동작전접근개념은 적의 반접근/영역거부 전략을 극복하고 군사력을 투사하기 위한 합동군의 운용에 대한 것이고, 공해전투 개념은 합동작전접근개념의 하위 개념으로서 해군과 공군의 전투력 통합에 대한 것이다. 이 두 개념은 전략이나 작전계획은 아니지만 전략임무를 수립하는데 매우 중요한 작전개념(CONOPS, Concepts of Operations)으로 평가되고, 발전되어지고 있다.

이 작전개념들은 미국에서만 뿐만 아니라 일본, 호주 등 미국의 동맹국과 중국 등 미국의 경쟁상대로부터도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다. 대한민국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도 두 작전개념에 관한 다양한 연구보고서를 만들어내고 있고, 해군본부는 ‘합동작전접근개념과 공해전투 개념을 고려한 미래 해군의 역할 연구’를 2012년도 중점연구과제로 선정하였다.²⁾

한미 동맹이 한반도 안보를 위한 가장 중요한 전략적 중심으로 자리하고 있는 현 안보상황에서 한국 해군이 미군의 전략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한미 연합작전능력이 전쟁을 억제하고, 승리를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이다. 또한 초강대국인 미국의 전략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은 급변하는 세계 안보 정세에 대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합동작전접근개념과 공해전투 개념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를 통해 한국 해군의 전략을 구상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그런데 국내의 연구들은 대다수가 한국군이 합동작전접근개념과 공해전투 개념을 수용하는 것을 전제하고, 수용 이후의 발전방향 등에 대해 논한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다소 합리적이지 않다. 미국으로부터 강력한 가입 요청이 있었던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와 미사일방어체계(MD, Missile Defense)에 한국이 각기 다르게 대응했던 것을 생각해보면, 합동작

1) 적국의 반접근(A2, Anti-Access) 전략은 미군 전력이 기지로부터 적국의 작전해역(공역)으로 전개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영역거부(AD, Area-Denial) 전략은 적국의 작전해역(공역) 내에서 미군 전력의 자유로운 군사행동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위 개념들은 미국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미국의 현존/잠재적 적국이 이러한 전략을 사용한다고 인정한 적은 없다; Air-Sea Battle Office, “Air-Sea Battle”(2013. 5), p. 2 available at <http://www.slideshare.net/tomlindblad/navy-sea-air-battle-concept-2013>(검색일: 2013년 7월 15일).

2) Air-Sea Battle Office(2013. 5), p. i, p. 4; 대한민국해군 공문 1함대인사과-827호(2013. 1.28.) '13년도 논문주제(중점 연구내용) 선정 제출 지시.

전접근개념과 공해전투 개념 또한 그것의 수용을 전제하고 발전상을 그리기 전에 수용 여부와 방법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논문은 한국 해군이 두 작전개념을 수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그에 대한 극복방안을 연구하여 수용 여부와 방법을 제안할 것이다.

2. 연구방법

이 논문은 통계치를 이용한 정량적 연구방법이 아닌 사례 분석을 통한 정성적 연구방법을 사용한다. 이는 합동작전접근개념과 공해전투 개념이 최근에 등장한 개념인데다가 많은 자료들이 비밀로 분류되어 있어서 통계분석을 할 정도의 자료 구축이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위와 같은 이유로 미 국방부의 공식 문서와 같은 1차 자료보다는 미국 주요 인사들의 발언이나 기고문, 한국 국방부의 연구보고서, 국내외 논문 등과 같은 2차 자료를 인용하여 분석할 것이다.

또한 현상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독립변수를 도출하는 인과관계 분석 방법이 아닌, 문제를 구성하는 요소를 찾아내어 분석하는 구성적(Constitutive) 방법을 사용할 것이다.³⁾ 이 논문의 소재를 고려할 때 인과관계 분석 방법을 사용하기는 다소 적합하지 않은데, 그 이유는 합동작전접근개념과 공해전투 개념이 현재까지도 발전되고 있는 개념인데다가 아직까지는 한국 해군에 주는 영향력 또한 모호하여 종속변수가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이 논문은 구성적 분석 방법을 사용할 것인데, 두 작전개념이 한국 해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을 찾아내고 이를 이용해서 만든 분석틀로 현상을 분석할 것이다.

이 논문의 논리 전개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제2장에서는 기존문헌 검토를 통해 합동작전접근개념과 공해전투 개념에 대한 이해를 돕고, 기존연구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적 분석틀을 구성할 것이다. 제3장에서는 대안적 분석틀을 통해 한국 해군이 두 개념을 전면 수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분석할 것이다. 이후 제4장에서는 위에서 식별된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한국 해군의 전략 수립 방향을 제안할 것이다.

3) 구성주의 이론과 구성적 분석 방법은 다음의 논문을 참고; 최중건, "안보학과 구성주의: 인식론적 공헌도를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vol. 49, no. 5(2009), pp. 81-100; Alexander E. Wendt, "On Constitution and Causation in International Relations",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vol. 24, no. 5(1998), pp.101-118.

II. 기존문헌 검토와 분석틀

1. 개념분석 : 합동작전접근개념과 공해전투 개념

1) 등장배경과 발전경과

미 국방예산의 삭감, 이라크 전쟁 및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종료, 중국의 부상은 합동작전접근개념과 공해전투 개념이 등장하는 근본적 계기가 되었다. 미군은 향후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같이 대규모로 지상군 전력이 투입되는 전쟁의 발생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했고, 중국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인식했다. 중국의 부상은 신무기체계 개발과 더불어 양적/질적 군사력 증강을 의미했고, 이것은 서태평양지역에서 미군의 자유로운 군사적 활동을 제약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미국에서는 중국의 반접근/영역거부 전략에 대비하여 작전적 접근 능력을 보장하기 위한 연구가 시작되었다.⁴⁾

2006년에 미 태평양 공군사령관의 주도 하에 태평양공군, 전략예산평가센터(CSBA, Center for Strategic and Budgetary Assessments) 및 국방부 종합평가국이 참가한 공해전투 개념 연구가 시작되었다. 공해전투 개념은 1980년대 서유럽에서 미군이 구소련의 침공에 대응하기 위해 발전시켰던 공지전투(AirLand Battle) 개념을 차용하여 만들어졌다. 구소련의 위협이 주로 육지에서 이루어졌던 것과 달리 중국의 위협은 바다, 하늘, 우주 및 사이버공간을 주 영역으로 하기 때문에 공지전투는 공해전투 개념으로 변형되어 발전되었다. 3년여의 기간 동안 6번의 모의전쟁연습을 통해 작성한 공해전투 개념 구상이 미 해군, 공군 참모총장에게 보고되었고, 추가 연구를 진행하여 2010년 5월에 공해전투 개념 초안이 발간되었다. 이후 현재까지 국방부 차원에서 공해전투 개념의 구체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⁵⁾

4) 국방정보본부 해외정보부 미국미주과, “미군 공해전투(Air-Sea Battle) 추진 관련 동향”, 「국방정보본부 연구보고서」(서울: 국방정보본부, 2011), p. 1.

5) 김재엽, “미국의 공해전투(Air-Sea Battle): 주요 내용과 시사점”, 『전략연구』 통권 제54호(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12), pp. 187-216; 국방정보본부 해외정보부 미국미주과, “미국의 「공해 전투(Air-Sea Battle)」 관련 보고”, 「국방정보본부 연구보고서」(서울: 국방정보본부, 2012), p. 2; 국방정보본부 해외정보부 미국미주과, “중국 군사력 강화 관련 미국의 「AirSea Battle」 구상 분석”, 「국방정보본부 연구보고서」(서울: 국방정보본부, 2011), p. 1;

합동작전접근개념은 미 국방부 및 합동참모본부 차원의 연구 과정에서 등장하였다. 해군과 공군 전력뿐만 아니라 지상군, 우주영역, 사이버영역을 포함하는 전 군의 전력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개념 연구가 진행되었다. 2010년 7월에 미 합동전력사에서 합동작전접근개념 연구가 시작되었고, 2012년 1월 17일에 미 국방부는 합동작전접근개념서를 발간한다. 이후 각 개념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어 가장 최근에는 2013년 5월에 공해전투개념서 9번째 개정판이 발간되었다.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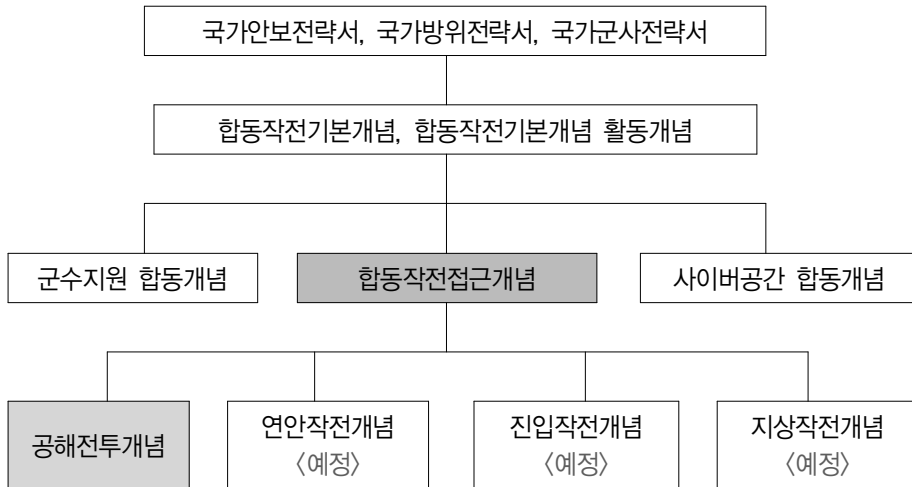
2) 합동작전접근개념

합동작전접근개념은 공해전투 개념을 포괄하는 상위 개념이다. 공해전투 개념이 해군과 공군의 전투력 통합에 집중하는 것과는 달리 합동작전접근개념은 지상군과 우주영역, 사이버영역을 포함하는 합동군 전체의 운용을 다룬다. 그렇기 때문에 합동작전접근개념에 대한 이해 없이 공해전투에 대해 연구하는 것은 사상누각이 될 우려가 있다. 현재 미국 내외에서 공해전투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합동작전접근개념에 대한 내용을 배제하고 단순히 공해전투의 내용만 다루는 경우가 많다. 이 논문은 공해전투 개념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위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두 개념의 연계성을 명확하게 밝히고, 합동작전접근개념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고자 한다.

합동참모본부, “美 합동작전접근개념(JOAC)”, 『합동참모본부 연구보고서』(서울: 합동참모본부, 2012), p. 1.

6) U.S. DOD(Department of Defense), 『Joint Operational Access Concept(JOAC)』(U.S. DOD, 2012) available at http://www.defense.gov/pubs/pdfs/JOAC_Jan%202012_Signed.pdf(검색일: 2013년 6월 25일); Air-Sea Battle Office, “Air-Sea Battle”(2013. 5); 합동참모본부(2012); 정능, “미국의 국방전략 및 작전개념 변화에 따른 우리의 대응 방안: 미국의 신 국방전략 지침과 합동작전접근개념을 중심으로”, 『해양전략』 제156호(대전: 합동군사대학교, 2012), pp. 1-21.

〈표 1〉 합동작전접근개념의 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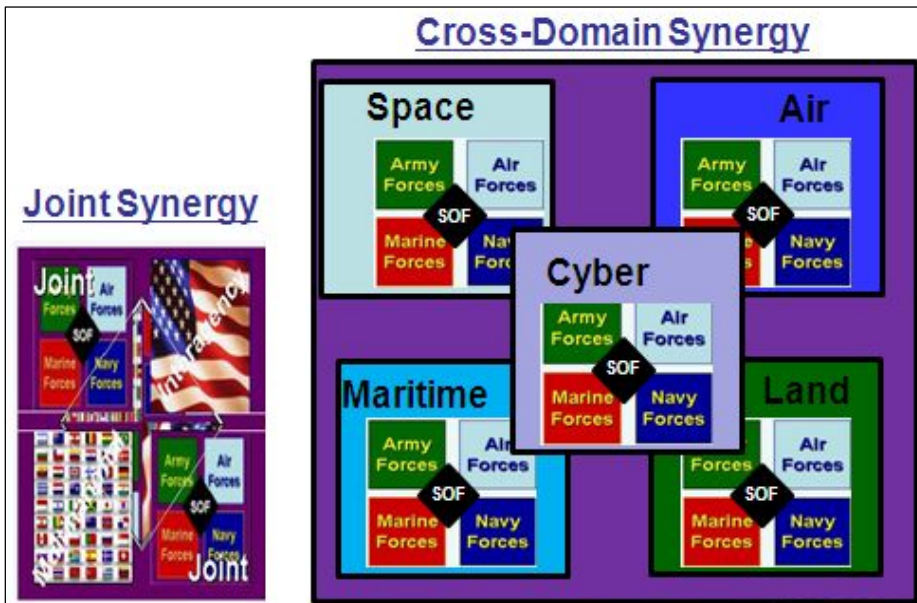
※ 출처: 합동참모본부(2012), p. 1 표를 수정해서 인용.

합동작전접근개념은 합동작전기본개념(CCJO, Capstone Concepts Joint Operations)의 하위 개념으로 공해전투개념(AirSea Battle), 연안작전개념(Concept on Littoral Operations), 진입작전개념(Concept on Entry Operations), 지상작전개념(Concept on Sustained Land Operations)을 포괄한다. 최초로 서태평양지역에서 중국의 반접근/영역거부 전략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등장했던 공해전투 개념이 특정 지역이나 대상을 상정하지 않고, 미국이 직면할 수 있는 모든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합동전력 운용 방향으로 발전되면서 합동작전접근개념이 등장하였다. 이 개념은 미군의 모든 전투사령부, 합동특수임무부대(JTF, Joint Task Force) 및 그 예하의 모든 사령부에 적용된다.⁷⁾

합동작전접근개념에서는 미군이 작전적 접근 능력을 보장받기 위해 극복해야 할 3가지를 제시하는데, 첫 번째는 신무기체계의 획기적인 발전과 확산이다. 신무기체계는 중장거리 미사일을 포함해서 장거리에서 미군을 공격할 수 있는 핵잠수함, 미 항공모함의 접근을 거부할 수 있는 대함탄도미사일, 미군의 자유로운 활동을 제약할 수 있는 순항미사일 및 수상/항공전력 등이 포함된다. 두

7) 공해전투 개념은 전 군(우주, 사이버 영역을 포함)의 전투력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연구, 발전되어 지고 있지만 최초 공해전투 개념이 등장한 것은 해-공군의 통합된 전투력 창출을 위한 것이었다; 합동작전접근개념에서는 11개의 작전적 접근 원칙과 30개의 작전적 접근을 위한 능력을 제안하고 있다; U.S. DOD(2012), p. 17, pp. 33-36; 합동참모본부(2012), pp. 7-10.

번째는 미군의 해외방어태세(Overseas Defense Posture) 변화이다. 미군의 해외방어태세 변화는 안보환경의 변화와 미국의 경제력 약화로 인해 불가피한 것이 되었다. 과거와 같은 명확한 적대국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미국의 동맹/우호국들은 미군의 자국 영토 내 주둔에 과거와 같은 호의를 보이지 않고 있다. 더구나 미국의 경제력 약화는 국방예산의 획기적인 절감을 요구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해외주둔군의 규모를 줄이는 방법이 제기되었다. 세 번째는 우주와 사이버영역에서의 경쟁이다. 우주와 사이버영역은 비대칭(Asymmetry) 영역에서의 경쟁이 치열하며, 육지, 바다, 공중에서의 경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군사력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우주 및 사이버 영역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⁸⁾



〈그림 1〉 합동작전접근개념에서 제안된 Cross-Domain Synergy

※ 출처: 합동참모본부(2012), p. 4(날개) 그림 인용.

합동작전접근개념의 핵심은 “Cross-Domain Synergy” 개념이다. 〈그림 1〉에 명시된 “Cross-Domain Synergy” 개념은 과거의 “Joint Synergy” 개념에 우주, 사이버 영역을 추가하고, 각 군의 상호 영역 간 자유로운 이동을 가능하게 하여 작

8) U.S. DOD(2012), p. 14; 합동참모본부(2012), p. 4.

전 운용의 융통성을 배가시켰다. 이러한 방법은 과거 적국의 공격에 대칭적(Symmetrical) 방법으로 대응했던 것과는 달리 비대칭적(Asymmetrical) 방법을 통한 대응법이 발전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적의 미사일을 전자기 공격을 통해 격추하고, 사이버공격을 통해 적의 감시체계를 무력화하며, 잠수함을 통해 적의 공중 위협을 제거하는 것 등이다.⁹⁾

3) 공해전투 개념

해군과 공군의 전투력 통합을 극대화하기 위한 공해전투 개념은 합동작전접근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합동작전접근개념 중 적국으로부터 가장 원거리에서 시작되는 것이 공해전투이기 때문에 공해전투를 통해 적국의 반접근/영역거부 전략의 무력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연안작전, 진입작전, 지상작전은 시행될 수 없다. 더구나 미국의 전략적 중심이 서태평양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해군과 공군 중심의 작전이 불가피한 작전환경의 특성 상 합동작전접근개념에서 공해전투 개념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절에서는 미 전략예산평가센터에서 발간한 공해전투 개념연구 초안의 내용과 이후에 연구, 발전되고 있는 내용을 구분하여 설명할 것이다.

(1) ‘공해전투 개념’ 초안

공해전투 개념은 서태평양지역에서 미국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미 군사력의 접근과 활동을 방해할 수 있는 중국의 반접근/영역거부 능력 증대는 미군에게 큰 위협이 되었다. 이에 따라 미군은 작전적 접근 능력을 보장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했고, 제일 먼저 개발된 것이 공해전투 개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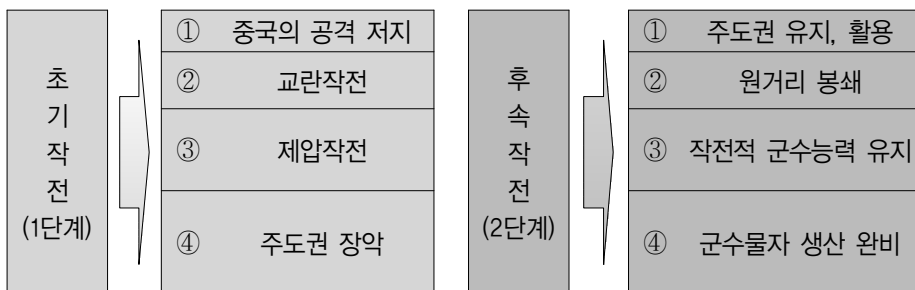
9) U.S. Chief of Naval Operations Adm. Jonathan Greenert, U.S. Chief of Staff of the Air Force Gen. Mark Welsh, “Breaking the Kill Chain: How to Keep America in the game when our enemies are trying to shut us out”, *Foreign Policy* internet homepage(2013.5.16.) available at http://www.foreignpolicy.com/articles/2013/05/16/breaking_the_kill_chain_air_sea_battle?page=0.1 (검색일: 2013년 6월 25일); U.S. DOD(2012), pp. 16-17.



〈그림 2〉 공해전투 개념의 주요 가정과 미-중 간 주요 경합

공해전투 개념은 7가지 주요 가정(Key Assumptions)을 전제로 한다. 이 가정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공해전투가 미래의 주요 위협으로 중국을 상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이 중국의 군사력과 전쟁지속능력을 미국과 경쟁 가능한 수준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과 중국의 주요 경합(Critical Competition)은 크게 다섯 가지로 예상되는데, 이것들은 주로 전쟁 초기 해군과 공군의 주도권 확보와 연관되어있다.¹⁰⁾

〈표 2〉 공해전투 개념의 2단계 작전



10) Jan van Tol, Mark Gunzinger, Andrew F. Krepinevich, and Jim Thomas, "AirSea Battle: A Point-of-Departure Operational Concept", CSBA(Center for Strategic and Budgetary Assessments) Internet Homepage(2010) available at <http://www.csbaonline.org/publications/2010/05/airsea-battle-concept/>(검색일: 2013년 6월 21일),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p. 13, pp. 21-25, p. 27.

공해전투 개념은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크게 2단계로 진행된다. 먼저 첫 번째 단계에서는 전쟁 초기에 4가지 작전선(Lines of Operation)을 병행해서 시행한다. 여기에는 중국의 공격을 저지하고, 교란작전과 제압작전을 실시하며,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작전이 포함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필요시 장기전에서의 승리를 위해 대전략 차원에서의 후속 작전을 추진하는데, 주도권을 유지 및 활용하고, 원거리 봉쇄 작전을 시행하며, 작전적 군수능력의 유지와 군수물자 생산을 완비하는 것이 포함된다. 위의 내용들은 공해전투 개념 초안에서 상당부분 구체화되어서 발간되었다.¹¹⁾

(2) ‘공해전투 개념’의 발전

공해전투 개념 초안의 내용만을 본다면 미국은 중국을 잠재적 적국으로 상정하고 공해전투 개념을 발전시켰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공해전투 개념 초안 발표 이후 미 해군참모총장과 공군참모총장을 비롯한 미군 주요 인사들은 공해전투 개념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상정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공해전투 개념이 발전되면서 초안과는 다소 상이한 형태로 발전되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현재 미군의 주요 인사들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공해전투 개념의 발전상을 분석해보자.

첫째, 공해전투 개념은 특정한 적이나 지역을 상정하지 않고 있다. 공해전투 개념 초안에서는 서태평양지역에서 중국의 위협을 극복하고 작전적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이 현재의 미군에게 가장 중요한 목표로 명시되었다. 하지만 개념이 발전되어지는 과정에서 이것은 단순히 중국의 위협을 극복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전 지구적인 반접근/영역거부 위협을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변화되어졌다.¹²⁾

둘째, 공해전투 개념은 미군이 전쟁을 수행할 때 필요한 작전적 접근성을 보장

11) Jan van Tol, Mark Gunzinger, Andrew F. Krepinevich, and Jim Thomas(2010),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pp. 28-34.

12) Chief of Staff of the Air Force General Norton A. Schwartz & Chief of Naval Operations Admiral Jonathan W. Greenert, “Air-Sea Battle Doctrine”, BrookingsInstitution Event(2012, 3.26.) available at http://www.youtube.com/watch?v=jo5iV8F6scA&feature=youtube_gdata_player(검색일: 2013. 6.22.); Lt. Col. Frank Hoffman, USMCR(Ret.), ADM Mark P. Fitzgerald, USN(Ret.), Lt.Gen. David Deptula, USAF(Ret.), “Luncheon Keynote Discussion: Air-Sea Battle: What Should It be?”, USNavalInstitute Event(2012, 5.18.) available at http://www.youtube.com/watch?v=IO_FWFbnF3E&feature=youtube_gdata_player(검색일: 2013. 7.14.).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인도적 지원, 재난구호 등 전쟁 이외의 군사 활동을 위한 접근성 보장도 포함한다. 공해전투 개념은 해군과 공군의 통합된 노력을 극대화하여 미군이 인도적 지원과 재난구호 임무를 수행할 때 제한되는 자연적/인공적 장애물을 좀 더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¹³⁾

셋째, 공해전투의 발전은 3가지 수준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먼저 제도 수준(Institutional Level)에서의 발전이 이루어질 것이다. 해군과 공군의 합동작전에서 통합은 아주 일반적인 용어로 자리하게 될 것이며, 상하 전 제대에서 규범으로 여겨질 것이다. 다음으로는 작전적 수준(Operational Level)에서의 발전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영역에서는 공해전투 개념을 통해 새로운 구상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존의 해군, 공군 전력을 잘 통합해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이 발전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물질 측면(Material Aspect)에서의 발전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분야에서는 투자와 획득 분야에서의 통합이 다루어질 것이다.¹⁴⁾

넷째, 공해전투 개념의 성공은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극대화를 위한 공통작전상황도(COP, Common Operation Picture)와 자료전송체계의 발전에 크게 의존한다. 공해전투 개념은 해군과 공군의 전투력 통합을 극대화시켜서 적의 반접근/영역거부 능력을 무력화시키고, 작전적 접근성을 보장받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지역에서든 타 군의 상황을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통신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공해전투 개념이 성공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¹⁵⁾

다섯째, 공해전투 개념의 핵심은 중첩된 영역(Across Domains)에서 해군과 공군의 중복된 노력을 통합하는 것이다(Eliminate Duplicate).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국방자원의 부족을 해결하고, 전투력 통합을 극대화할 수 있다. 해군은 공군에서 잘 발전되어 있는 전투 영역에 불필요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 공군에서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군 수상함과 잠수함이 초수평선(OTH-T, Over The Horizon Target) 미사일 공격을 시행하게 될 것이다. 공군은 해군이 제공한 대공방어를 통해 기지방호와 제공권 확보를 달성하게 될 것이다.¹⁶⁾

13) Chief of Staff of the Air Force General Norton A. Schwartz & Chief of Naval Operations Admiral Jonathan W. Greenert(2012); U.S. Chief of Naval Operations Adm. Jonathan Greenert, U.S. Chief of Staff of the Air Force Gen. Mark Welsh(2013).

14) Chief of Staff of the Air Force General Norton A. Schwartz & Chief of Naval Operations Admiral Jonathan W. Greenert(2012).

15) Chief of Staff of the Air Force General Norton A. Schwartz & Chief of Naval Operations Admiral Jonathan W. Greenert(2012).

16) Chief of Staff of the Air Force General Norton A. Schwartz & Chief of Naval Operations

2. 기존연구 검토

기존연구를 검토해보면 한국 국내에서 연구된 문헌과 국외에서 연구된 문헌의 큰 차이점을 알 수 있다. 국내에서 연구된 문헌들에서는 한미 동맹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때문인지 한국군이 합동작전접근개념과 공해전투 개념을 수용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한국군이 정전 이후부터 수많은 교리와 다양한 무기체계를 미군으로부터 도입하여 사용한 것을 고려하면 이는 당연한 양상일 수도 있다. 미군에서 발전시키고 있는 작전개념을 한국군이 도입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었을 것이다. 특히 한국은 미국과 공동으로 연합작전계획을 운영하고 있고, 수시로 연합훈련을 실시하기 때문에 이러한 인식은 합당할 수도 있다.

국내 연구들에서 제안하는 것은 크게 3가지이다. 먼저 전력건설 분야에 대한 제안이다. 합동작전접근개념과 공해전투 개념은 최신의 무기체계와 전방위 전투네트워드를 기반으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두 작전개념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전력증강과 신무기체계 도입이 필수적이다. 다음으로는 작전 분야에서의 접목이다. 두 작전개념은 해군과 공군을 포함한 전 군의 합동작전능력을 극대화시켜서 미군의 작전적 접근 능력을 보장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합동참모본부를 중심으로 한 작전지휘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한국군에서 두 작전개념을 받아들이는 것은 합동작전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마지막은 중국과의 우호적 관계 정립에 대한 필요성 제안이다. 미국이 공해전투 개념서 초안에서 중국을 잠재적 적국으로 지목했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미군의 주요 인사들이 공해전투 개념이 특정 지역이나 적국을 상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더라도 중국이 공해전투 개념이나 이것을 포괄하는 합동작전접근개념을 위협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발생했을 때 한국이 난처한 입장에 처하지 않도록 사전에 중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하고, 갈등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을 하고 있다.¹⁷⁾

Admiral Jonathan W. Greenert(2012).; U.S. Chief of Naval Operations Adm. Jonathan Greenert, U.S. Chief of Staff of the Air Force Gen. Mark Welsh(2013).

- 17) 합동참모본부(2012); 김재엽(2012); 정능(2012); 함종규, “미국의 「空海전투(AirSea Battle)」구상”, 『합참』 제50호(서울: 합동참모본부, 2012), pp. 15-20; 국방정보본부 해외정보부 미국미주과, “미국의 「공해 전투(Air-Sea Battle)」 관련 보고”, 「국방정보본부 연구보고서」(서울: 국방정보본부, 2012); 국방정보본부 해외정보부 미국미주과, “미국의 「空海 전투(AirSea Battle)」구상 분석”, 「국방정보본부 연구보고서」(서울: 국방정보본부, 2011); 국방정보본부 해외정보부 미국미주과, “미군 공해전투(Air-Sea Battle) 추진 관련 동향”, 「국방정보본부 연구보고서」(서울: 국방정보본부, 2011); 국방정보본부 해외정보부 미국미주과, “중국 군사력 강화 관련 미국의 「AirSea

반면 국외 학자들의 경우 많은 연구에서 두 작전개념의 수용을 전제하고 있지는 않다. 국외에서도 대부분의 연구들은 두 작전개념의 실체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발전상을 논의하는데 집중한다. 하지만 비판적 시각을 제기하는 학자들도 다수 있는데, 이들은 지상군을 배제하는 것처럼 보이는 공해전투 개념은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방어가 공격보다 쉽기 때문에 합동작전접근개념과 공해전투 개념으로는 중국의 반접근/영역거부 전략을 무력화시킬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또한 두 작전개념을 구현하기 위한 노력이 미군의 과도한 예산 사용을 강요하게 되고, 이것으로 인해 미국이 패권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한다. 두 작전개념의 공세적 성격으로 인해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고조되고, 핵전쟁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비판도 있다.¹⁸⁾

3. 분석틀

국내 학자들의 연구는 한 가지 중요한 사항을 배제한 채 논리가 전개되어 있다. 그들은 두 작전개념의 수용 여부에 대한 사전 논의 없이 한국군이 이것들을 수용하는 것을 전제하고 논리를 전개한다. 하지만 한국군이 두 작전개념을 수용할 것인지, 수용한다면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 없이 수용 이후의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 논문은 이러한 국내 연구들의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대안적 분석틀을 제안할 것이다.

한국 해군의 많은 작전개념과 교리는 미군의 것을 기반으로 해서 발전되어졌

Battle」 구상 분석」, 「국방정보본부 연구보고서」(서울: 국방정보본부, 2011).

18) Douglas Macgregor and Young J. Kim, "Air-Sea Battle: Something's missing", AFJ(Armed Forces Journal) Internet Homepage(2012) available at <http://www.armedforcesjournal.com/2012/04/9772607>(검색일: 2013년 7월 13일); 국방정보본부 해외정보부 미국미주과, "空海戰鬪에서 空海作戰으로 용어 변경 관련 美 연구원 주장 요약", 「국방정보본부 연구보고서」(서울: 국방정보본부, 2012), p. 2; Lt. Col. Frank Hoffman, USMCR(Ret.), ADM Mark P. Fitzgerald, USN(Ret.), Lt.Gen. David Deptula, USAF(Ret.)(2012); Hugh White, "No-one's Ocean: the pointlessness of 'AirSea Battle' in Asia", IISS Event(2012.10.16.) available at https://www.youtube.com/watch?v=mumC_AhZOSU&feature=youtube_gdata_player (검색일: 2013년 7월 13일); Ben Schreer, "AirSea Battle-Dr Ben Schreer", ASPI Event(2013. 4.15.) available at https://www.youtube.com/watch?v=B53v4ewyzME&feature=youtube_gdata_player(검색일: 2013년 7월 13일).

다. 그렇기 때문에 미군이 새롭게 발전시키고 있는 작전개념을 한국 해군이 무관심하게 지켜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옳은 판단도 아니다. 한미 연합방위체제를 통해 한반도 안정을 유지하고 있는 현 안보상황에서 미군이 요구할 경우 한국 해군은 합동작전접근개념과 공해전투 개념을 수용해야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이 두 개념을 전면 수용하는 것과 부분적으로 수용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

한국 해군이 합동작전접근개념과 공해전투 개념을 전면 수용하는 것과 부분 수용하는 것은 다음의 사례를 통해서 그 의미의 중요성을 잘 알 수 있다. 한국은 미국 주도의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에는 전면 참여하고 있으나, 미사일방어체계(MD, Missile Defense)에는 전면 참여하지 않고 북한의 탄도미사일만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Korea Air and Missile Defense)를 구축하고 있다. 한국이 미국 주도의 두 가지 구상에 각기 다른 방법으로 대응한 것은 한반도 안보와 국제사회에서의 입장을 고려한 것이었다. 한국이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에 참가하는 것은 북한의 저항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었으나 국제적으로는 큰 문제가 될 소지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미국의 참가 요청에 처음에는 부정적 인식을 보였으나 북한의 위협과 불법행위가 증대하는 상황을 고려해서 전면 참가를 결정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미사일방어체계는 상황이 달랐다. 한국이 미국 주도의 미사일방어체계에 가입한다는 것은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의 핵무기 공격 능력을 제한하여 냉전시기 핵전쟁을 억제해왔던 상호확증파괴(MAD, Mutual Assured Destruction) 개념을 무력화할 우려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미사일방어체계에 가입하는 것은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큰 저항을 받을 우려가 있었고, 한국은 미국의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전략적 판단에 따라 이 체계에 가입하지 않았다. 물론 후자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를 구축한 것은 사실상 미국 주도의 미사일방어체계에 가입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명확한 개념 정의의 중요성을 생각한다면 이 두 체계는 분명히 다른 것이다.

한국 해군이 합동작전접근개념과 공해전투 개념을 전면 수용하게 될 경우 가장 큰 이득은 한미 동맹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연합작전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한국의 동맹국으로서의 지지를 재확인할 것이며, 양국 군 간 상호운용성 증대를 통해 연합 전투력을 배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이전에 이 두 개념을 한국 해군이 전면 수용하게 되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 논문은 국내 학자들의 기존 연구들에서 발견한 전제의 오류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 해군이 합동작전접근개념과 공해전투 개념을 전면 수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 해군의 수용 여부와 방법에 대해서 제안할 것이다.



〈그림 3〉 분석틀

이 논문에서는 3가지 수준에서의 분석을 시도할 것이다. 분석할 내용은 한반도 안보환경 수준, 동북아 안보환경 수준, 그리고 관료체제 수준으로 구분된다. 먼저 한반도 안보환경 수준에서 한국군과 미군의 작전환경의 차이점을 분석할 것이다. 이것은 새로운 작전개념을 도입하거나 전략을 수립할 때 기초하는 정보판단을 염두에 둔 것이다. 적아 능력과 작전환경에 대한 분석은 전략을 수립할 때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이중에 적아 능력을 분석하는 부분은 두 작전개념이 전력건설 분야를 포함하기 때문에 현재의 능력을 판단하여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제외시켰다. 다음으로는 동북아 안보환경 수준에서 주변국 반응을 분석하고, 관료체제 수준에서 한국군 내 인식을 분석할 것이다. 이 수준들은 기존문헌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도출하였다. 두 작전개념에 대한 국외 학자들의 주요 비판 내용을 종합한 후에 여기서 도출된 문제점이 한국 해군에게 동일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인식에 의해 만들어졌다.

다음 장에서는 위의 분석틀을 바탕으로 한국 해군이 합동작전접근개념과 공해 전투 개념을 전면 수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 해군의 수용 여부 및 방법에 대해 제안할 것이다.

Ⅲ. 비판적 접근: 한국 해군이 전면 수용 시 발생 가능한 문제점

1. 작전환경 차이 간과

미군의 합동작전접근개념과 공해전투 개념을 한국 해군의 전략에 전면 적용시킬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첫 번째 문제점은 작전환경의 차이를 간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모든 방책(COA, Course of Action)은 정보판단을 근거로 이루어진다. 국방 기획체계 또한 정보판단을 근거로 각종 기획문서들이 작성되는 형태를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작전환경에 대한 판단은 전략과 작전계획 등을 수립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미군의 합동작전접근개념과 공해전투 개념이 한반도 작전환경에 적합한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 두 개념을 한국 해군에 전면 수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할 것이다.

〈표 3〉 한국군과 미군의 작전환경 차이점

한국군	구 분	미군
한반도 주변	주요 작전지역	해외 전진기지 주변
○주적 : 북한군 ○잠재적 위협 : 주변국	주요 위협	○주적 : 테러 집단 및 지원국 ○잠재적 위협 : 중국 등
○북한군 : 지상군 위주 ○주변국 : 초강대국	위협세력 특징	○핵개발, 초강대국, 테러리스트
○지상군 주도의 작전이 가장 큰 비중	전구(Theater) 작전계획 특징	○다양한 방향으로 수립 * 예) 서태평양은 해-공군 주도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군과 미군의 작전환경은 상당한 차이점을 갖고 있다. 한국군은 한반도에서 북한을 주적으로 하여 지상군 작전의 비중이 가장 큰 반면에 미군은 본토와 이격된 해외 전진기지 주변에서 테러 및 중국 등 다양한 형태의 불특정 위협에 대응한다. 그래서 중동에서는 지상군 위주의 작전을 수행하고, 서태평양 지역에서는 해-공군 위주의 작전을 수행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전구 작전계획이 수립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러한 차이점을 고려했을 때 미군에서 발전시키고 있는 합동작전접근개념과 공해전투 개념을 한국 해군이 전면 수용하는 것은 다소 합리적이지 못하다. 합동작전접근개념과 공해전투 개념은 단순하게 해-공 합동작전능력의 향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적의 반접근/영역거부 전략을 거부하고 작전적 접근 능력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더구나 그 핵심은 공해전투 개념으로서 해군과 공군 위주의 작전이 주를 이루게 된다. 그런데 한국군의 작전환경은 이 두 개념이 등장하게 된 목적과 배경에 부합하지 않는다.

두 개념이 등장하게 된 목적은 적의 반접근/영역거부 능력을 무력화시키고, 미군의 작전적 접근 능력을 보장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한국군의 작전환경은 이러한 개념을 적용시키기에는 미군과 다소 상이한 모습을 갖고 있다. 한국군은 주적인 북한과 영토/영해/영공이 맞닿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반접근/영역거부 전략을 수행할 수 없다. 물론 일부에서는 북한의 해안방어미사일(CDCM, Coastal Defense Cruise Missile), 기뢰 등을 반접근/영역거부 능력으로 보기도 하지만 이는 반접근/영역거부 전략에 대해 명확하게 개념을 정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반접근/영역거부 전략은 중국이 미군 전진기지로부터의 전력 전개를 원거리에서 차단하고, 중국 인접 해역 및 공역에서 미군의 자유로운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만들어진 개념이다. 직접적으로 전선을 맞대고 있는 한반도 작전환경에 적용시키기에는 다소 상이한 개념이다. 해안방어미사일이나 기뢰 등으로 인해 해군이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영토와 영공이 맞닿아 있는 한반도 작전환경에서는 지상군과 공군을 통해 제한적으로나마 작전적 접근 능력 보장이 가능하다.

두 개념의 등장배경을 분석해도 한국 해군의 전면 수용은 합리적이지 못한 판단임을 알 수 있다. 두 개념의 시작은 작전적 접근 능력을 보장하기 위한 공해전투 개념의 발전에서였다. 이것은 본토에서 원거리 이격된 기지로부터 해-공군 전력을 이용하여 작전을 시행하는 미군의 특성 때문이었다. 하지만 한국군은 북한의 대규모 지상군에 대응하기 위해 전력구조 상 지상군의 비중이 가장 크고, 작전계획 또한 지상군 주도의 작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전구작전 수준에서 보면 해군과 공군은 개전 초기에 주도권을 확보한 이후에는 많은 분야에서 지상군을 지원하는 형태를 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군에서 지상군을 배제한 작전개념을 수립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위와 같은 이유로 미군의 합동작전접근개념과 공해전투 개념을 한국 해군이 전면 수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위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한국군과 미군의 작전환경은 다르기 때문에 합동작전개념과 공해전투 개념을 한국 해군이 전면 수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한국

해군의 전략에 이 두 개념을 접목시키기 위해서는 개념의 재해석, 또는 부분 적용 등이 필요하다.

2. 주변국의 저항

미군의 합동작전접근개념과 공해전투 개념을 한국 해군의 전략에 전면 적용시킬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두 번째 문제점은 주변국의 저항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합동작전접근개념과 공해전투 개념은 적국으로 미 전력을 투사하기 위한 개념이고, 핵무기 사용까지 고려하기 때문에 다소 공세적인 성향을 갖는다. 더구나 공해전투 개념의 초안에는 미국의 적대국이 중국으로 명시되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해군이 이 두 개념을 전면 수용할 경우 주변국(특히 중국)으로부터 저항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 해군은 북한 이외의 적국을 상정하고 있지 않지만, 합동작전접근개념과 공해전투 개념을 전면 수용할 경우 중국을 적국으로 가정한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더불어 최근 중국과 해상에서 연합훈련을 실시하는 등 군사적 역할 증대를 추구하는 러시아로부터의 저항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합동작전접근개념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공해전투 개념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만큼 공해전투 개념에 대한 비판 또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공해전투 개념이 다소 공세적인 성향을 갖고, 중국에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으며, 전쟁을 촉발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비판적 시각은 미국 내외에서 다양하게 제기된다. 이러한 비판은 당연히 중국 내에서 가장 격렬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 군사과학원 ‘판가오웨이’ 연구원은 2011년 3월에 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Center For Strategy and International Studies)가 주최한 포럼에서 미군의 공해전투 개념을 강력하게 비판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동(同) 구상은 중국과 미국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며, 중국군은 미국이 대만 문제에 개입하거나 대중(對中) 선제공격을 가하지 않는 한 미군을 목표로 하지 않을 것임. 만일 미국이 동(同) 구상을 발전시킨다면 중국도 이에 상응하는 전략 발전이 불가피할 것임.”¹⁹⁾

공해전투 개념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중국에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미 브루킹스연구소(BrookingsInstitute)의 외교정책 연구부장인 오핸론(Michael O'Hanlon) 박사는 2012년 10월에 발표한 기고문에서 공해전투 개념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제기했는데, 이 개념이 과도하게 전쟁의 가능성을 강조하고 있고 지나치게 공격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해전투 용어를 공해작전(Air-Sea Operation)으로 변경하고, 중국본토에 대한 선제공격 또는 중국본토의 조기 전장화(戰場化)를 상정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²⁰⁾

호주에서도 공해전투 개념에 대한 비판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호주 국립대학의 화이트(Hugh White) 박사는 공해전투 개념이 미국과 중국의 위기조를 만들어내고, 분쟁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였다. 더구나 공해전투 개념 구현을 위한 지나친 노력으로 인해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미국이 해양 통제권을 상실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하였다. 슈어(Ben Schreer) 박사는 공해전투 개념이 중국을 억제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그 반대로 미국과 중국 간의 핵위기를 고조(Nuclear Escalation)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였다.²¹⁾

해군 전력분석시험평가단 선임연구관인 정삼만 박사는 한국해양전략연구소(KIMS, Korea Institute for Maritime Strategy)와 미 해군분석센터(CNA, Center for Naval Analyses)가 공동 주최한 국제학술회의에서 공해전투 개념이 추구하는 억제력이 주로 공세적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억제가 실패할 경우 전면전의 위험부담이 있다는 인식을 표명했다. 정삼만 박사가 공해전투 개념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공해전투 개념이 미국과 중국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인식했던 것은 분명하다.²²⁾

위와 같은 시각을 바탕으로 추정해보면 한국 해군이 이 개념을 전면 수용하는 것은 주변국으로부터의 저항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중국으로부터의 저항이 강할 것인데 동북아 지역에 안보딜레마를 불러일으킬 가능성과 중러 동맹의 강화를 만들어낼 가능성,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 분쟁 발생 시 동맹국으로서의 자동 연루(Entrapment) 또는 방기(Abandonment)의 선택적 기로에 서게 될 가

19) 국방정보본부 해외정보부 미국미주과, 「미국의 「空海 전투(AirSea Battle)」구상 분석」, 「국방정보본부 연구보고서」(서울: 국방정보본부, 2011), p. 2.

20) 국방정보본부 해외정보부 미국미주과, 「空海戰鬪에서 空海作戰으로 용어 변경 관련 美 연구원 주장 요약」, 「국방정보본부 연구보고서」(서울: 국방정보본부, 2012), p. 2.

21) Hugh White(2012); Ben Schreer(2013).

22) 정삼만, 「미국의 신국방전략과 동아시아 및 한반도에 대한 함의」 토론, 한국해양전략연구소,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소식지」 No. 49(서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12), pp. 21-23.

능성 등이 있다.²³⁾

한미 동맹은 한반도 안정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한미 동맹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요청할 경우 한국 해군이 합동작전접근개념과 공해전투 개념을 수용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을 전면 수용하는 것과 일부 수용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 더구나 현재까지 미군 내에서조차 이 두 개념을 동맹국에게 어떻게 적용시키고, 어느 정도의 정보 공개를 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 해군이 먼저 전면 수용을 결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판단이 아니다. 더구나 공세적 성향의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 Missile Defense)가 전 세계적으로 많은 논쟁을 만들어 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미국의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미사일방어체계 가입에 대해서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 해군이 합동작전접근개념과 공해전투 개념을 전면 수용할 필요는 없다.

3. 군 내부의 저항

미군의 합동작전접근개념과 공해전투 개념을 한국 해군의 전략에 전면 적용시킬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세 번째 문제점은 한국군 내부에서 저항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공해전투 개념은 합동작전접근개념보다 먼저 등장했지만, 합동작전접근개념이 등장하면서 그 하위 개념으로 정립되었다. 하지만 공해전투 개념에 대한 연구가 세부적이고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합동작전접근개념에 대한 연구 성과는 다소 미비하다. 미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모두에서 전쟁연습(War Game)에 공해전투 개념을 접목시키는 등 전군 차원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도 있지만 공해전투 개념이 해군과 공군을 중심으로만 발전되어지고 있고, 이것이 합동작전접근개념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사실은 미국 내에서도 일부 비판적 시각을 만들어내고 있다.²⁴⁾

합동작전접근개념은 공해전투를 시작으로 지상작전까지 작전지역으로 전력을 투사하기 위한 모든 단계를 다루고 있다. 하지만 공해전투 이외 다른 단계들은 아

23) 함중규(2012).

24) U.S. Chief of Naval Operations Adm. Jonathan Greenert, U.S. Chief of Staff of the Air Force Gen. Mark Welsh(2013); Chief of Staff of the Air Force General Norton A. Schwartz & Chief of Naval Operations Admiral Jonathan W. Greenert(2012).

직 개략적인 구상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공해전투 개념이 해군과 공군의 합동작전에만 집중한다는 사실은 지상군에 대한 중요성을 간과한다는 비판이 등장하게 하였다. 이러한 비판은 공해전투 개념이 지나치게 단기적인 전투만을 염두에 두고 있고, 해군과 공군만으로는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가 불가하며, 지상군 없이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것이 주를 이룬다.²⁵⁾

역사적으로 위와 같은 군 내부의 갈등은 끊임없이 발생되어왔다. 모든 조직은 관료체제의 특성상 개별 이익을 추구하는 특성이 있고, 이것은 군 또한 예외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공해전투 개념이 해군과 공군 위주로만 발전되고 있고, 이것이 합동작전접근개념의 전부인 듯한 인식을 주는 것은 지상군으로부터 저항을 받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갈등은 과거 걸프전과 코소보전에서 지상군 없이 항공력만으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논쟁과 유사하게 진행될 것이다. 공해전투의 유효성에 대한 논쟁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²⁶⁾

한국 해군 또한 이러한 갈등에서 예외일 수 없다. 한국 해군이 합동작전접근개념과 공해전투 개념의 상관관계를 잘못 해석해서 적용하거나, 합동작전접근개념을 배제한 채 공해전투 개념만을 전면 수용할 경우에는 군 내부에서 저항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예를 들어 북한과 육지로 맞닿아 있는 한반도 안보상황에서 공해전투 개념은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이 등장할 수 있고, 지상군을 배제한 공해전투 개념은 도리어 합동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한국 해군이 전략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비판에 지나치게 신경 쓰는 것은 불필요하지만, 각자의 길이 주는 득실에 대한 명확한 분석을 바탕으로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25) Douglas Macgregor and Young J. Kim(2012); 국방정보본부 해외정보부 미국미주과, “미군 공해전투(Air-Sea Battle) 추진 관련 동향”, 「국방정보본부 연구보고서」(서울: 국방정보본부, 2011), p. 2; 국방정보본부 해외정보부 미국미주과, “空海戰鬪에서 空海作戰으로 용어 변경 관련 美 연구원 주장 요약”, 「국방정보본부 연구보고서」(서울: 국방정보본부, 2012), p. 2; 국방정보본부 해외정보부 미국미주과, “미국의 「공해 전투(Air-Sea Battle)」 관련 보고”, 「국방정보본부 연구보고서」(서울: 국방정보본부, 2012), p. 4.

26) Andrew L. Stigler, “A Clear Victory for Air Power: NATO’s Empty Threat to Invade Kosovo”, *International Security*, vol. 27, no. 3(Winter, 2002/03), pp. 124–157; Daryl G. Press, “The Myth of Air Power in the Persian Gulf War and the Future of Warfare”, *International Security*, vol. 26, no. 2(Fall, 2001), pp. 5–44.

IV. 제안: 문제점 극복을 통한 한국 해군 전략에의 부분적 수용

그렇다면 한국 해군은 어떠한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해야할 것인가? 한국 해군이 미군의 합동작전접근개념과 공해전투 개념을 전면 수용하는 것은 올바른 선택이 아니다. 이 두 개념을 한국 해군의 전략에 전면 수용하는 것은 미군과 한국군의 작전환경 차이를 간과할 수 있고, 주변국으로부터 저항을 받을 수 있으며, 군 내부에서 저항을 만들어내는 등 여러 문제점을 일으킬 수 있다.

하지만, 한국 해군은 동맹국인 미국이 요구하게 될 경우 두 작전개념을 수용(전면 또는 부분)하거나 지원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이 작전개념들이 미군의 합동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합동참모본부 중심으로 하는 작전지휘구조를 갖고 있는 한국군에게 이 작전개념들이 줄 수 있는 교훈은 매우 크다. 결국 한국 해군이 두 작전개념을 전면 수용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부분적 수용을 통해서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합동작전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제3장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그림 4〉 문제점 극복과 한국 해군 전략에의 부분적 수용 방법

한국 해군이 두 작전개념을 전면 수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림 4>와 같은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은 아래서 자세히 설명하겠다.

1. 작전환경의 차이를 고려한 전략 수립

한국 해군이 합동작전접근개념과 공해전투 개념의 수용 여부와 방법을 고려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작전환경의 차이점이다. 제3장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한국군과 미군의 작전환경은 여러 측면에서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해군은 두 작전개념에 대한 재해석을 통해서 교훈을 도출하고, 이러한 교훈을 한국 해군의 실정에 맞게 부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미군에서와 같이 두 작전개념을 적의 반접근/영역거부 능력을 무력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지상군의 역할을 축소하고, 해군과 공군을 중심으로 한 작전개념을 정립하지는 말아야 한다. 한반도 안보환경은 반접근/영역거부 개념을 적용하기에는 적의 위협 형태가 미군과 다소 상이하고, 지상군 주도의 작전 비중이 가장 큰 한반도 작전환경에서 해군과 공군만을 중심으로 한 작전개념을 시행하는 것은 다소 비합리적이다. 더구나 지상군의 역할을 축소하는 방법은 합동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해군은 두 작전개념을 전략에 접목시킬 때 미군이 사용하는 ‘합동작전접근개념’과 ‘공해전투 개념’의 두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지양하고, 대신에 그 개념들에 내포되어 있는 합동작전능력 향상을 위한 ‘방법’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두 작전개념의 ‘방법’에서 도출할 수 있는 교훈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제한된 국방예산의 효율성 증대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는 합동성 강화에 대한 것이다.

국방예산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 두 작전개념으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교훈은 각 구간·중복된 영역을 제거(Eliminate Duplicate)하는 부분이다. 이 부분은 여러 무장을 한 표적에 공격하는 것을 차단하는 등의 작전분야에서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시설, 자원, 지휘통제체계 등의 부분까지 포함한다. 타군의 유류저장시설 공동 사용, 부대방호 통합, 정보감시체계 통합 전시(Display)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타군의 시설과 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 불필요하게 중복 투자를 할 필요는 없다. 예산의 운용 또한 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등의 노력도 필요하다. 여기에 방공작전에서 공군의 인력을 활용하는 등 타군의 인적 자원을 활용하

는 방안도 정립된다면 유무형의 모든 분야에서 ‘중복된 영역을 제거’하여 제한된 국방예산 하에서도 전투력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두 작전개념으로부터 합동성 강화에 대한 교훈을 도출하여 합동작전능력을 극대화시켜야 한다. 합동작전접근개념과 공해전투 개념이 과거의 작전개념과 대비해서 완전히 새로운 개념은 아니다. 단지 통합의 정도를 극대화하고, 전군이 하나의 지향점을 갖고 노력을 집중하기 위해 만들어진 개념이다. 물론 사이버 영역과 우주 영역의 중요성을 명시하였지만 이 또한 완전히 새로운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한국 해군은 지금까지 추진해오던 합동성 강화를 어떻게 보완해야 할 것인가? 한국 해군이 이 두 개념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여러 가지가 있다. 상호운용성 증대, 제도 및 자원 등 모든 분야에서의 통합, 무장의 통합 운용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타 군과의 경계를 허물어버릴 수 있는 획기적인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전형적인 관료체제의 특성에 따라 조직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일부를 버림으로써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을 해군 전략에 명시하는 것은 전 해군 장병의 통합된 노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2. 주변국의 저항을 고려한 전략 수립

한국 해군이 두 작전개념의 수용 여부와 방법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두 번째 요소는 주변국의 저항이다. 한국 해군이 합동작전접근개념과 공해전투 개념을 수용하게 될 경우 주변국(특히 중국)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해군은 두 작전개념의 부분적 수용을 통해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합동작전능력을 향상시키면서도 주변국을 도발하지 않고, 동북아에서의 위기고조 상황을 피할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첫 번째는 위에서 제시한 방법과 동일하게 ‘합동작전접근개념’과 ‘공해전투 개념’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전략에 접목시키지는 않는 것이고, 두 번째는 평소 주변국과의 우호관계 증진에 매진하는 것이다.

첫 번째 방법은 두 작전개념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인데, 이것은 한국 해군이 주변국을 적국으로 상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한 것이다. 한국 해군은 북한 이외의 적국을 상정하지 않는다. 그런데 두 작전개념은 서태평양

지역에서 미군의 작전적 접근 능력을 보장하기 위한 연구 과정에서 등장하였기 때문에 서태평양에서 미국과 경쟁 대상이 될 수 있는 중국 등은 이 개념들을 공세적인 것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두 작전개념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한국 해군이 주변국을 적국으로 상정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결국 두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방법’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교훈을 도출하여 전략에 적절하게 접목시켜야 할 것이다.

두 번째 방법은 평소 주변국과의 우호관계를 증진시켜서 한국 해군이 공세적 의도를 갖고 있지 않고, 주변국을 적국으로 상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한국 해군이 두 작전개념으로부터 교훈을 도출하여 합동작전 능력 향상을 도모하더라도 불필요한 오해를 사는 일이 없을 것이다. 주변국과의 군사교류와 연합훈련을 증대하고, 고위급 회담 등을 통해 우호관계를 증진시킨다면 한국 해군이 두 작전개념을 부분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주변국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가안보를 수호하려는 방어적 수단이라고 인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3. 군 내부의 저항을 고려한 전략 수립

한국 해군이 두 작전개념의 수용 여부와 방법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세 번째 요소는 군 내부의 저항적 시각이다. 합동작전접근개념과 공해전투 개념은 합동성 극대화를 추구하지만 자칫 잘못 적용하면 군 내부에서 저항을 받을 수 있다. 미군 내에서도 합동작전접근개념보다는 공해전투 개념에 집중하는 추세 때문에 지상군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한다는 등의 비판적 시각이 있다. 한국 해군이 두 작전개념을 부분적으로 수용할 때는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

한국 해군이 위와 같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합동작전접근개념과 공해전투 개념의 상관관계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교훈을 도출하여 부분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제2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합동작전접근개념은 공해전투 개념을 포괄한다. 그렇기 때문에 공해전투 개념의 발전은 합동작전접근개념의 발전과 연계되어야 한다. 해군과 공군의 합동성 향상과 더불어 지상군을 포함한 전 군 차원의 합동성 강화를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해군과 공군의 합동작전능력 향상이 최우선 과제라고 할지라도 지상군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들의 능력을 활용하고,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적국의 영토에 상륙군과 지상군을 투입하는 진입작전

(Entry Operation)과 적국의 영토에서 수행되는 지상작전에 해군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발굴해서 발전시켜야 한다. 사거리 연장 함포탄을 이용한 공세적 함포지원과 지상군에 군수물자를 원활하게 보급하기 위한 연합/합동해안군수지원(C/JLOTS, Combined and Joint Logistics Over the Shore) 계획의 발전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서 지상군이 해군의 전략을 해군과 공군의 합동성 강화만을 위한 것이라고 오인하지 않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지상군을 포용한 전 군 차원의 합동성 강화를 추구하는 것은 지상군 중심의 군 구조를 갖고 있는 한국군 내에서 전략의 추진력을 유지하고, 논리를 강화하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V. 결 론

한국 해군은 미군의 합동작전접근개념과 공해전투 개념을 부분적으로 수용해서 발전시켜야 한다. 한국의 동맹국이자 초강대국인 미국이 중점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는 두 작전개념을 무관심하게 바라보는 것은 옳지 않지만,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것도 옳지 않다. 기존의 국내 연구들이 두 작전개념의 한국군 전략에의 수용을 전제하고 논리를 전개해나갔던 반면에 이 논문은 그 이전에 선행되어야 하는 개념의 수용 여부와 방법에 대한 부분을 다루었다.

한국 해군이 합동작전접근개념과 공해전투 개념을 전면 수용하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크게 3가지이다. 한국 해군은 한국군과 미군의 작전환경 차이를 간과할 가능성이 있고, 주변국(특히 중국)과 불필요한 갈등 관계에 놓이게 될 수 있으며, 군 내부에서 저항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 해군이 두 작전개념을 전면 수용하는 것은 합리적인 판단이 아니다. 하지만 미국은 한국의 동맹국이며, 합동성을 가장 잘 발전시킨 국가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한국에 두 작전개념의 수용이나 지원을 요청한다면 거부하기는 어려우며, 두 작전개념의 장점을 잘 접목시킨다면 한국 해군은 전투력을 상승시키고 합동성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한국 해군이 두 작전개념을 수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극복하는 방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군과 미군의 작전환경 차이를 고려하여 두 작전개념의 ‘용어’가 아닌 ‘방법’에서 교훈을 도출해야 한다. 한국군 작전환경에 적합한 부분을

식별하여 전략에 접목시켜야 한다. 국방 예산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작전, 군수, 시설, 교육훈련 등 각 군간 중복된 영역을 제거하고, ‘Cross-Domain Synergy’ 효과를 창출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다음으로는 주변국의 오인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두 작전개념의 ‘방법’을 수용하는 것이 주변국을 적대국으로 상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두 작전개념의 ‘용어’ 그대로를 사용하는 것은 지양하고, 평소 주변국과의 우호관계 증진을 통해 갈등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상군의 오인을 방지해야 한다. 합동 작전접근과 공해전투 개념의 상관관계를 잘 이해해야 하고, 공해전투 개념의 접목에만 집중하면 안 된다. 해군과 공군의 합동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만큼이나 지상군과의 합동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전 군의 전투력을 통합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 논문은 미군의 합동작전접근개념과 공해전투 개념을 분석하여 한국 해군의 전략 수립 방향을 제안하였다. 이후 전략을 구체화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것은 차후 연구 과제로 남겨두기로 하겠다.

참고문헌

- 국방정보본부 해외정보부 미국미주과, “미국의 「공해 전투(Air-Sea Battle)」 관련 보고”, 「국방정보본부 연구보고서」(서울: 국방정보본부, 2012).
- 국방정보본부 해외정보부 미국미주과, “미국의 「空海 전투(AirSea Battle)」구상 분석”, 「국방정보본부 연구보고서」(서울: 국방정보본부, 2011).
- 국방정보본부 해외정보부 미국미주과, “미군 공해전투(Air-Sea Battle) 추진 관련 동향”, 「국방정보본부 연구보고서」(서울: 국방정보본부, 2011).
- 국방정보본부 해외정보부 미국미주과, “중국 군사력 강화 관련 미국의 「AirSea Battle」 구상 분석”, 「국방정보본부 연구보고서」(서울: 국방정보본부, 2011).
- 국방정보본부 해외정보부 미국미주과, “空海戰鬪에서 空海作戰으로 용어 변경 관련 美 연구원 주장 요약”, 「국방정보본부 연구보고서」(서울: 국방정보본부, 2012).
- 김재엽, “미국의 공해전투(Air-Sea Battle): 주요 내용과 시사점”, 『전략연구』 통권 제54호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12), pp. 187-216.
- 대한민국해군 공문 1함대인사과-827호(2013. 1. 28.) '13년도 논문주제(중점 연구내용) 선정 제출 지시.
- 정능, “미국의 국방전략 및 작전개념 변화에 따른 우리의 대응 방안: 미국의 신 국방전략지침과 합동작전접근개념을 중심으로”, 『해양전략』 제156호(대전: 합동군사대학교,

- 2012), pp. 1-21.
- 정삼만, “미국의 신국방전략과 동아시아 및 한반도에 대한 함의” 토론, 한국해양전략연구소,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소식지」 No. 49(서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12), pp. 21-23.
- 최종건, “안보학과 구성주의: 인식론적 공헌도를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vol. 49, no. 5(2009), pp. 81-100.
- 함종규, “미국의 「空海전투(AirSea Battle)」구상”, 『합참』 제50호(서울: 합동참모본부, 2012), pp. 15-20.
- 합동참모본부, “美 합동작전접근개념(JOAC)”, 「합동참모본부 연구보고서」(서울: 합동참모본부, 2012).
- Air-Sea Battle Office, “Air-Sea Battle”(2013. 5) available at <http://www.slideshare.net/tomlindblad/navy-sea-air-battle-concept-2013> (검색일: 2013년 7월 15일).
- Alexander E. Wendt, "On Constitution and Causation in International Relations",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vol. 24, no. 5(1998), pp.101-118.
- Andrew L. Stigler, “A Clear Victory for Air Power: NATO’s Empty Threat to Invade Kosovo”, *International Security*, vol. 27, no. 3(Winter, 2002/03), pp. 124-157.
- Ben Schreer, “AirSea Battle-Dr Ben Schreer“, ASPI Event(2013. 4.15.) available at https://www.youtube.com/watch?v=B53v4ewyzME&feature=youtube_gdata_player(검색일: 2013년 7월 13일).
- Chief of Staff of the Air Force General Norton A. Schwartz & Chief of Naval Operations Admiral Jonathan W. Greenert, “Air-Sea Battle Doctrine”, BrookingsInstitution Event(2012. 3.26.) available at http://www.youtube.com/watch?v=jo5iV8F6scA&feature=youtube_gdata_player (검색일: 2013. 6.22.).
- Daryl G. Press, “The Myth of Air Power in the Persian Gulf War and the Future of Warfare”, *International Security*, vol. 26, no. 2(Fall, 2001), pp. 5-44.
- Douglas Macgregor and Young J. Kim, “Air-Sea Battle: Something’s missing”, AFJ(Armed Forces Journal) Internet Homepage(2012) available at <http://www.armedforcesjournal.com/2012/04/9772607>(검색일: 2013년 7월 13일).
- Hugh White, “No-one’s Ocean: the pointlessness of ‘AirSea Battle’ in Asia”, IISS Event(2012.10.16.) available at https://www.youtube.com/watch?v=mumC_AhZOSU&feature=youtube_gdata_player(검색일: 2013년 7월 13일).
- Jan van Tol, Mark Gunzinger, Andrew F. Krepinevich, and Jim Thomas, “AirSea Battle: A Point-of-Departure Operational Concept”, CSBA(Center for Strategic and Budgetary Assessments) Internet Homepage(2010) available

at <http://www.csbaonline.org/publications/2010/05/airsea-battle-concept/>
(검색일: 2013년 6월 21일),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Lt. Col. Frank Hoffman, USMCR(Ret.), ADM Mark P. Fitzgerald, USN(Ret.), Lt.Gen. David Deptula, USAF(Ret.), “Luncheon Keynote Discussion: Air-Sea Battle: What Should It be?“, USNavalInstitute Event(2012. 5.18.) available at http://www.youtube.com/watch?v=IO_FWFbnF3E&feature=youtube_gdata_p layer(검색일: 2013. 7.14.).

U.S. Chief of Naval Operations Adm. Jonathan Greenert, U.S. Chief of Staff of the Air Force Gen. Mark Welsh, “Breaking the Kill Chain: How to Keep America in the game when our enemies are trying to shut us out”, *Foreign Policy* internet homepage(2013.5.16.) available at http://www.foreignpolicy.com/articles/2013/05/16/breaking_the_kill_chain_air_sea_battle?page=0,1 (검색일: 2013년 6월 25일).

U.S. DOD(Department of Defense), 『Joint Operational Access Concept(JOAC)』(U.S. DOD, 2012) available at http://www.defense.gov/pubs/pdfs/JOAC_Jan%202012_Signed.pdf(검색일: 2013년 6월 25일).

Abstract

This paper asks whether the Republic of Korea (ROK) Navy should Study on ROK Navy's Strategy Planning - Concerning to JOAC, ASB Concept of US Armed Forces -

Na, Sung-Min*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suggest how to plan ROK(Republic of Korea) Navy's strategy concerning to JOAC(Joint Operation Access Concept) and ASB(Air-Sea Battle) concept of US(United States) armed forces. Since 2006, US armed forces has been developing CONOPS(Concepts of Operations), JOAC & ASB. These concepts will not only affect security environment for Korea Peninsula and West Pacific Area, but also will be affected to ROK Navy's Strategy. Therefore, Korea Navy has to consider and review those concepts and should discuss the way to secure peace of Korea Peninsula.

JOAC & ASB have been developed for securing operational access ability of US armed forces against enemy forces. A2/AD(Anti-Access, Area-Denial) is the strategy of possible enemy forces against US forces' approaching into the operation area and impede operations within area. US forces had to overcome enemy's A2/AD strategy in coming century to protect national interest and sustain global leadership. The main concept of JOAC & ASB is "Cross-domain Synergy", which means 'to eliminate duplicate and improve joint operability containing space and cyber operation area.'

Korea Navy's acceptance of JOAC & ASB without any revising is not a rational choice. Without the amendment some problems can be occurred by the Korea navy's acceptance for the original version of JOAC & ASB. Those are

* ROK Navy Officer(Lieutenant), Commanding Officer of PKM-329 in 1st fleet.

“Missing differences of operation environment between Korea and US”,
“Impediment from neighbor nations, especially PRC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Impediment inside from Korea armed forces”.

Therefore, Korea Navy has to evaluate and find out the way to solve for
JOAC & ASB to apply for their strategy and minimise those possible problems
above. This thesis is expected to be the solution.